시론

《미국없는 날》, 《미군없는 땅》을 위해

남조선에서 8.15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반전, 평화활동을 벌린 민주로총 중앙통일선봉대의 구호는 《미국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힘으로》였다.

매일같이 진행된 강연 및 토론회, 거기에 반영된 제목중에도 《미군없는 내 고향》이 있었다.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절규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미국없는》, 《미군없는》 날이 과연 언제 있었던가.

추억의 류수를 거슬러오르면 1945년 9월 8일이 눈에 밟힌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불미스러운 날이다.

남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사슬이 미국식민지노예의 멍에로 바꾸어진 날이다.

일제시기 초대조선총독으로 이 땅에 기여든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라고 뇌까렸다.

해방된 남조선땅에 뿌려던진 맥아더의 포고는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 발포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점령군에 반항하는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한다.》는 폭언이였다.

《해방자》, 《우방》으로 여기였던 미국, 미군은 이렇게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총독정치를 그대로 계승한 종주국, 점령군이였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말한다.

이 땅에서 해방은 8.15부터 9월 8일까지 불과 20여일이였다고.

미군이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찍은 그날부터 조선반도의 절반땅 남녘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못지 않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 정의와 진리, 민주와 통일에 대한 피비린 살륙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종일에서 종미로 변신한 남조선의 친일세력은 《게다》짝대신 미군화짝에 매달려 친미사대를 비루한 생의 명줄로 여기며 동족대결과 민족분렬에 기생, 번식해왔다.

자주권부재의 치욕을 《동맹》, 《혈맹》으로 미화하고 사대굴종의 노예살이를 《세계화》, 《선진화》로 분식하면서 친미, 친일의 바통을 이어가는 쓸개빠진자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곬도 세기를 이어 깊어만 가고있다.

《미국없는 시대》, 《미군없는 땅》은 결코 구호나 꿈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반미, 반전,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 힘차게 웨친다.

《미국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손으로》

정 필

진해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진보연합/ 진보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맹/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COVID-19》와 함께 확산되는 사회적불안과 혼란

최근 남조선에서 악성전염병 4차대류행의 장기화로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날을 따라 짙어가고있다고 한다.

악성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는 남조선의 각 분야를 흔들고있지만 특히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국은행》은 현 경제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남조선의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의 부정적평가지수는 58.9로서 2019년 금융위기때의 41.9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수준인 60에 거의 도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은 약 2배, 주식가격은 1.7배 상승하고 2021년 상반기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규모도 1년전에 비해 19%나 증가한데다 가계부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중 가장 높다고 한다.

보고서는 2021년 상반기 4개월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2020년 같은 시기에 비해 26.4%나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실업이 구조화되여 높은 실업률이 고착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빈곤층을 증대시키고 사회량극화현상을 심화시켜 사회적불안을 고조시키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7월초부터 본격화된 악성전염병의 4차대류행으로 민생고가 극도에 이르고 그에 따른 민심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련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하루감염자수가 8월 10일부터는 매일 1 500~1 800여명, 최고 2 150여명에 달하고있으며 특히 전염력이 매우 높은 δ변이비루스감염자비률이 하루감염자의 근 75%에 이르고 전 지역에서 집단감염사례와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개별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있어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현재 저소득층은 악성전염병사태발생전에 비해 소득이 급격히 떨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10년만에 최고기록을 돌파하여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하락하여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최하위소득계층으로 전락하였으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악화로 파산되여 실업자로 되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자영업자들이 빈사상태에 처해있다,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요란하게 광고하는 일자리는 가상현실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 경제위기해소에 대한 희망은 애초에 사라져버렸다고 평하였다.

《악성전염병확산사태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당국의 약속은 공념불에 불과하였다.》, 《정부야말로 최악의 〈COVID-19〉전파자》 등 현 당국에 대한 비난들이 수그러들줄 모르는 악성비루스와 함께 날로 커가고있는것이 남조선의 실상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단평

시정배들의 란무장

남조선에서 다음기 《대통령》감투를 노린 권력야심가들이 오뉴월 구데기 끓듯하고 정치권은 누거리야시장같이 법석인다.

덩지가 큰 여야당의 인물들은 물론이고 군소정당, 무소속 등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저저마다 《대선》경쟁에 뛰여들어 민심의 이목을 끌기 위한 싸구려《공약》을 팔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대통령》자리를 노리고 복날 쉬파리 성하듯 하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정계라는것이 얼마나 역스러운 정치간상배들의 소굴인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권력은 곧 부귀와 향락, 치부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이 진행될 때마다 탐욕과 치부에 환장이 된자들이 저저마다 팔걷고 나서서 저만이 민생을 위해 무엇인가 할것처럼 고아대는 꼴이란 참 눈이 시리고 귀가 아플 정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과 만성적인 경제침체, 갈수록 더해만 가는 민생악화로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인민들은 배만 고픈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달파한다.

그러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민심의 마음을 다독일 정책이나 방략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과 함께 허황한 《공약》만 람발하면서 뜬구름 잡을 소리만 주절대고있다.

인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오직 저 하나의 향락만을 위해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 이런 시정배들때문에 남조선에서 민생이 녹아나고 사회가 갈수록 썩어가는것이 아니겠는가.

바다물이 짠것을 알려면 한모금이면 족하다고 하였다.

《대선》후보로 자처하며 쏟아져나온 인물들과 그들의 진흙탕싸움을 보고서도 남조선정국은 말그대로 시정배들의 란무장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주광일

《동식물란장판국회》

남조선《국회》에 따라다니는 오명이 많다.

의원들이 놀고먹으면 《식물국회》, 여야당 의원들끼리 싸움만 하면 《동물국회》, 《란장판국회》, 무더기로 《법안》이 통과되면 《날치기국회》…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런 오명이 생겨나군 했다.

그런데 인차 그 오명들이 재현될판이라고 한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법안들의 《국회》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하기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개정안》, 《탄소중립법》, 《국회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악법》이라고 고아대면서 《무제한 토론》과 《국회보이꼬트》 등 온 힘을 모아 대응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무제한 토론》이나 《국회보이꼬트》로 시간을 끌면 《식물국회》가 될것이고 《자유한국당》시절처럼 삭발식을 하거나 함마나 쇠스랑을 들고 《국회》에 돌입하면 《동물국회》, 《란장판국회》, 《싸움국회》가 될것은 분명하다.

그 어떤 《대의명분》이 없고 여당이 내놓은것이라면 《무조건 반대》, 《덮어놓고 반대》하는 떼쓰기당이다.

오직 여당에 대한 흑색선전, 여론조작만이 작동하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무조건 옳다는 식이다.

지금 악성전염병의 4차대류행과 경제악화로 민생은 아비규환이다.

바깥은 경제적파국인데 민생을 론해야 할 《국회》는 정치적파국이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정치적무관심이 늘어나고 《국회》나 의원들에 대한 환멸이 날로 커가고 있는것이다.

《국민의힘》이 귀맛좋게 운운하던 《변화와 혁신》, 《공정과 정의》라는것이 이런것인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고 《동물원정당》, 《수족관정당》이 되여 내부싸움을 벌리는것도 모자라 《국회》나 바깥에 나서면 상대방을 물고뜯기에 여념이 없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란장판국회》, 차라리 모두 합쳐서 《동식물란장판국회》로 하는것이 어떨런지.

리성심

구걸질해야 받을것은 배척뿐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인 윤석열이 20, 30대 청년세대로부터 랭대를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인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 2030에서 싸늘한 퇸잔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이 《민지야 부탁해》라는 깜빠니야를 벌려놓고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나섰지만 정작 20, 30대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윤석열은 인터네트에서 MZ세대(1981년부터 2004년까지 출생한 17살부터 40살까지 청장년을 의미)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구상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로 해당 깜빠니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해당 게시글과 함께 이와 관련한 회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민지한테 련락이 왔다.》며 전염병으로 취업에 걱정인 학생들과 집값과 육아를 걱정하는 청년들을 소개하면서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시글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글이 잇달았다.

윤석열이 영상에서 관계자들에게 가르치려는듯 한 모습, 인위적인 연출 등이 청년세대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네티즌(인터네트리용자)들은 《안하느니만 못한짓을 하고있다.》, 《도대체 누가 기획한것인가?》, 《담당자 교체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남조선의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에 대한 20, 30대 청년세대의 랭담한 반응을 놓고 현실을 모르는 그의 망발들과 특권의식에 물젖은 고압적인 자세와 행동, 련속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추문의혹들때문이라고 평하고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청년세대들이 기성정당들과 정치인들의 구태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며 정치현실에 적극 참여하고있다.

때문에 청년세대의 이런 심리를 노린 윤석열은 자기가 청년문제해결의 적임자처럼 광고해대며 그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분주탕을 피워대였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한다고 청년들에게 사회적불평등과 불공정을 강요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정의의 투쟁을 마구 탄압해온 친미파쑈독재자들을 조상으로 받들고있는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로서의 윤석열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있다.

《한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한다.》, 《후꾸시마원전은 폭파된적이 없다.》, 《녀성권익옹호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여 남녀사이의 건전한 교제를 막고있다.》, 《박근혜구속은 나와 상관이 없다.》를 비롯하여 초보적인 사회정치적흐름도 인식하지 못해 함부로 지껄이거나 제가 한짓도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과 처신은 윤석열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을 날로 커가게 하고있다고 한다.

하기에 얼마전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20, 30대 청년세대의 지지률은 고작 9.2%와 8.1%밖에 안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정의감이 강한 청년세대의 배척을 받는 보수세력의 전망은 밝을수 없다고 예평하고있다.

김장호

현대판노예집단－남조선군의 부패상을 폭로한다

남조선군부가 2014년부터 군내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인권유린행위들을 근절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세워 《선진군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식병영문화와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지고 부패와 타락, 염전사상이 만연된 깡패집단, 오합지졸의 무리를 《선진화》해보려는것은 구름을 손으로 잡아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염전, 염군에 질식된 무맥한 집단

남조선군 사병들속에서는 전쟁은 당국이나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들은 목숨이나 부지하다 무사히 집으로 가면 된다고 하면서 군복무를 태공하는 현상이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런 속에 군사분계선과 해안경비선이 뚫리고 민간인들이 해군기지들과 군부대들에 불법침입하는 등 동서해안의 한심한 경계실태로부터 발생한 사고가 최근 20개월동안 10여차례나 일어났다고 한다.

특히 군부대들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키지 않아 박격포탄과 기관총탄 지어 휴대용반땅크미싸일 등 실탄들이 주민지구로 날아가고 신형호위함에서 발사한 포탄들이 민간려객선주변에 떨어지는것과 같은 각종 오발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염전, 염군에 물젖은 실태는 예비군이라고 다를바 없다.

남조선의 예비군은 해마다 평균 2박3일동안만 훈련에 참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보초를 서는것마저 두려워하고 예비군장교들은 명색일뿐 부대관리와 지휘능력도 갖추지 못하여 예비군은 군사작전은 고사하고 공습경보가 울릴 때 대피장소와 대피하는 방법 등 초보적인 전시행동요령조차 모르는 형편이라고 한다.

명령지휘체계와 복종체계를 떠난 군대는 벌써 군대라고 말할수 없다.

남조선군도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일원화된 명령지휘체계와 상관과 부하, 상급과 하급간 규정과 질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군상층부는 물론 하급장교와 사병들속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하극상》이 만연되고있다고 한다.

2020년 12월 륙군참모총장이 부사관들에게 나이어린 장교들이 반말로 명령해도 복종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부 부사관들이 《인격침해》라고 《인권위원회》에 고발하여 부사관이 4성장군까지 길들이려 한다는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일선부대들에서는 악성전염병사태를 구실로 상급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병훈련을 비롯한 훈련일정들을 떼먹는것이 일상화되고 사병이 중대장의 명령에 반발하여 야전삽으로 폭행하고 신병들까지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막말을 해대는 등 명령지휘체계가 엉망이 되고있다고 한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사병들의 손전화기사용이 허용되면서 사병들이 부실급식, 상급의 학대행위 등을 수시로 인터네트에 공개하고 각종 신소를 하여 장교들은 사병들의 눈치를 보는 정도라고 한다.

결과 2015년에 63건이였던 명령불복종행위가 2020년에는 거의 4배로 증가한 242건에 달하였다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군전반에 만연된 염전, 염군사상으로 하여 군내부의 기강해이현상이 우심해지고 군률이 상실된 완전한 무풍지대로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인권유린의 서식지, 부패전시장

잔인성과 포악성을 기질로 하는 미국식병영문화, 깡패문화가 판을 치는 남조선군내에서 사병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신기루와 같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살인적인 기합과 구타, 욕설과 폭행으로 하여 남조선군내의 반인권적인 실태는 말그대로 지옥에 비길수 있다.

올해에만도 해군장교들이 술에 만취되여 사병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한 사건, 해병대 1사단에서 대대장이 사병을 목표판옆에 세워놓고 사격훈련을 한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가혹행위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고 한다.

해병대 1사단에서도 선임사병들이 후임사병을 장기간 괴롭힌 사건이 폭로되여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온갖 패륜과 악덕, 폭력이 란무하는 속에 남조선군내에서 녀성군인들의 인권도 무참히 유린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녀성부사관이 상급의 성추행에 대해 고발하였다가 묵살당하자 정신적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책을 세운다고 복닥소동을 피웠지만 불과 석달후인 8월 해군에서 녀성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륙군에서도 녀성하사가 직속상관인 남성중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6월에는 공군 녀중사사망사건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국방부 직할부대 륙군준장이 부대녀성에 대한 성추행을 감행한 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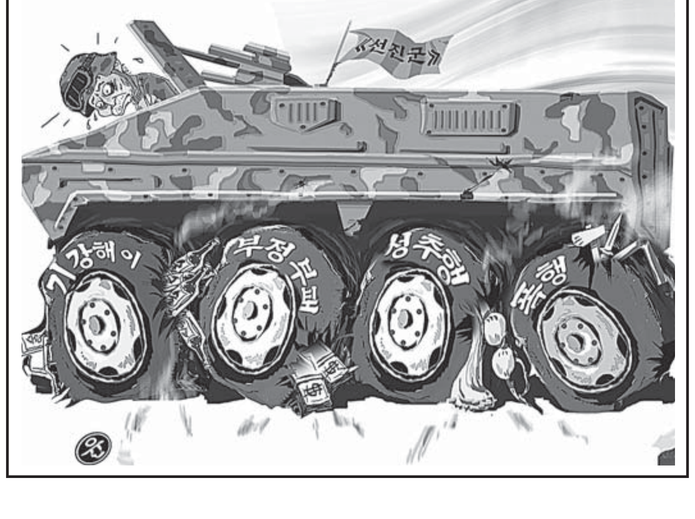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들은 오합지졸의 무리, 무지막지한 깡패집단, 부패의 서식장인 남조선군의 참혹한 인권실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군당국이 《선진군대》, 《선진적병영문화》를 떠들지만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들을 감싸기 위한 궤변에 불과할뿐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무지막지한 식민지고용군, 염전과 염세에 절어 타락과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오합지졸의 무리, 폭력과 기합으로만 유지되는 깡패집단인 남조선군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비난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만평 《선진군》 망상



섬나라족속들의 후안무치한 망동

최근 일본의 로골화되는 력사부정책동과 재침야망기도가 겨레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8.15를 계기로 일본수상은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한데 이어 《전국전몰자추도식》이라는데서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 무슨 《적극적평화주의》에 대해 떠들어댔다. 지어 전 일본수상과 방위상을 비롯한 정객들이 특급범죄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를 무리지어 참배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한편 일본은 남조선법원이 내린 일본전범기업인 미쯔비시중공업의 남조선내 대금압류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일본이 수용할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8월 16일 일본방위성이 처음으로 발간한 어린이용《방위백서》에서 《북이 일본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경계감시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를 《다께시마》로 뻐젓이 표기해놓는 망동을 부리여 또다시 민족적분노를 자아냈다.

섬나라족속들만이 할수 있는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8.15가 어떤 날인가.

과거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조선민족과 인류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웠던 일본이 전범국의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 항복을 선언한 날이다.

마땅히 일본으로서는 8.15를 저들의 치떨리는 과거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새 출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보내고 방위상을 비롯한 정객들이 참배하다못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과 반공화국적대의식을 주입시키는 《방위백서》까지 뻐젓이 발간한것을 보면 일본의 력사의식과 재침야망기도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것은 엄정한 력사에 대한 부정이고 침략력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군국주의재침야망의 발로인것이다.

피로 얼룩진 저들의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철면피한 나라, 다른 나라와 민족을 타고앉으려는 침략적근성을 조금도 버리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인데 이를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을 우리 민족이 아니다.

남조선 각계에서 《스가가 과거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사죄와 반성을 외면하였다.》, 《독도는 력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로서 일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일본의 재침야망기도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우리 겨레는 날로 우심해지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갈것이다.

김송미